후보자등록 마감 본격적 선거 준비 돌입

도내 후보들 선거대책위 구성 등 초반 승기 잡기 방안 마련 몰두

제20대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이 지난 25일 마감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전북지역 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전열 가다듬는 등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 준비에 들어갔다.

각 후보들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일부 후보의 경우는 여론조사를 통해 경쟁 후보와 선거구 판세를 분석하는가 하면 다양한 표밭갈이에 들어갔다.

또 일각에서는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제한된 선거운동에서도 필승의 각오를 다졌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들은 부활절 주말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으며,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산과 야외를 찾은 시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명함을 건네며 표밭갈이에 분주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전주병)는 지난 26일 건지산 등산로, 체육대회 행사, 거리활동 등을 중심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정 후보는 27일 7곳이상의 교회와 성당을 방문, 예배에 참석한 지역민들과 접촉 행보를 넓혔다.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전주을)도 지난 25일 전주삼성전자서비스센터 방문, 26일 삼천천 걷기를 통한 지역민 소통 등 하루 20여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성당에 다니는 장 후보는 27일은 서신성당에서 부활절 미사와 함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같은 지역구인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 역시 바쁜 일정을 보냈다.

27일 전주대 한식조리학과를 방문, 한식의 세계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무소속 강동원 후보는 무소속 후보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남원순창임실 선거구를 돌면서 야당의 진짜후보임을 내세웠다.

강 후보는 자신은 30년 이상 정치권에 있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했던 강동원 후보가 민주적통 후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위기에 빠트리고 망친 문재인·김종인 두 전·현직 당대표에 의해 공천을 받은 정치신인보다는 자신이 오만하고 무능한 현 정권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전주갑)는 하루종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공약 알리기에 바빴다.

김 후보는 자신의 12대 희망공약 첫 번째로 제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법' 제정 가운데 '국회의원 사회봉사 100시간 의무화 추진'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특별취재반

문재인 '집토끼' 김종인 '산토끼' 역할 분담론

문 전 대표, 영남과 수도권, 친노·진보세력 표지키기
김 대표, 호남 중도층 합리적 보수 등 으로 외연 확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연일 당 정체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총선 승리를 위해 사실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영남과 수도권, 친노,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더민주의 '집토끼'인 진보세력 표를 지키고, 김종인 대표는 호남, 중도층,합리적 보수세력 등 이른바 '산토끼'를 공략,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친노를 경계하는 호남 표 몰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대표는 지난 23일 "더민주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현재와 같은 일부 세력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고 발언, 사실상 당을 '우클릭'할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26~27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자신은 '바지사장'이 아니라며 문 전 대표와 선을 그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의 대선후보로 정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27일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정조준하며, 국민의당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권분열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당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다른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는 최근 "당의 정체성 논쟁이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관념적이고 부질없는 논쟁"이라며 "당의 정체성은 중도개혁정당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때부터 확고하게 정리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왼쪽으로는 진보를, 오른쪽으로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는 정당"이라며 "확장을 위해 진보, 민주화운동세력, 시민운동세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쪽 면만 본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와 문 전 대표는 이처럼 정체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이것이 두 사람간의 권력투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오후 늦게 기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문 전 대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나는 운동권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이 없다. 운동권적 사고방식으로는 당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27일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김병관 후보 지원을 위해 한 성당을 찾은 자리에서 "김 대표가 운동권이 아닌 운동권식 당 운영이 문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을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결국 김 대표는 보수쪽으로 당의 외연을 넓히고, 문 전 대표는 진보세력을 끌어안는 전략을 통해 총선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더민주는 진보, 중도, 합리적 보수세력까지 모두 포용해야 한다"며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수도권, 영남까지 세를 확장해야 정권교체를 내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모두 승리를 위해서는 외연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기존의 당 지지세력을 지키며 당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전북선관위,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도내 15개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감시할 개표참관인을 공개모집한다.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인원수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데 각 구·시군선관위별로 5~15인 이내로 최대 145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주시완산구·전주시덕진구·군산시·익산시선관위는 각 15명이내이다. 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선관위는 각 10명이내이다.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선관위는 각 5명이내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금까지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취재반

이춘석 후보, "더민주 전북 승리 이끌어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후보(익산갑)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은 1,000여명의 당원과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다.

이춘석 후보는 "이 자리의 주인은 저를 지켜주시고 성원해주신 우리 당원과 시민 여러분이다"며 "익산갑을 필두로 반드시 더민주의 전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3선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은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정당이 어디인지, 지역발전을 실현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경선과정에서 전북의 판이 완전히 흔들리는 바람에 지금 전북정치를 견인할만한 사람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며, "누구보다 먼저 당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끝까지 전북의 승리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특별취재반

이석권 후보,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되겠다"

익산을지역 이석권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 후보)는 "지난 24일 익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후보를 등록하고 제20대 총선의 본격레이스에 들어설 예정이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후보등록을 하며 만감이 교차했고" "지난 예비후보 기간 동안에는 익산시민을 우롱하는 정당들의 행태에도 많이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무소속 후보로써 익산시민을 대변하고 익산의 민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정당정치, 패권정치에 더 이상 의지해서는 익산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나 이석권은 특권이나 기득권을 지향하는 정당주의에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지 않겠다"면서 "이제는 무소속으로 정당정치를 심판하는 일에 익산시민이 함께 해주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강동원 후보, "지역협력·상생협력 구축"

무소속 강동원 후보(임실·순창·남원, 사진)는 27일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가칭)네이쳐센터(생태자원관)을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에 유치해 올 상반기에 개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네이쳐센터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지난해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강력히 요청하고 이후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으로부터 마침내 '네이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실무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만간 네이쳐센터가 개원돼 지리산권역의 생물보전과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통한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지리산 남원권역 거주 자원활동가와 시민대학 졸업생의 교육장 및 활동공간 부여로 지역협력 및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김종회 후보, "국민을 위한 목소리 높이겠다"

김종회 국민의당 후보(김제시·부안군 선거구)는 지난 24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민생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십여 년 간 김제와 부안은 기존의 정치인들을 믿고 지지해줬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농·어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지역민의 자신감 또한 줄어들었다. 우리 지역의 현재 그림은 회색빛이다. 이것은 국민을 이끌어나가는 정책 지도자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기존 정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지난 30년간은 사람의 양심을 밝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욱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4.13 총선에서 필승하여 반드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드높이겠다."고 다짐하였다.

/특별취재반

유성엽 후보, '3·3·3' 공약 발표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정읍·고창, 사진)는 27일 '기호3번 유성엽의 3·3·3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공약은 ▲정읍시를 위한 약속 ▲고창군을 위한 약속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 등의 3가지 약속의 큰 틀 아래 3가지 주제별로 3개의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 공약이다.

정읍시를 위한 약속에는 '사계절 체류형 일류 관광정업', '첨단과학기술의중심 정읍', '정읍의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등이 있고 고창군을 위한 약속으로는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명품 관광고창', '세계로 통하는 사통발달 고창', '고창발전견인 미래산업기술' 등이 있다. 유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에 처음 도전하면서 약속드렸던 국회 출퇴근 공약을 흐트러짐 없이 8년째 지키고 있다"면서 "이번에 다시 하나가 된 정읍고창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첫 약속 역시 흐트러짐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이강수 후보, 식량농업생산특구지정 추진

무소속 이강수 후보는 정읍시와 고창군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임에도 WTO와 FTA 등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민의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식량농업 생산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보가 밝힌 공약은 시와 군의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을 면치 못해 농업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지원에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도 한계점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 하기위한 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의 이점을 살리고 안정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양지역의 식량농업생산특구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특구지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실질적 농업발전과 농업생산기반정비,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 명품 브랜드화에도 변화를 가져와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을 다짐하였다.

/특별취재반

4.13 선거 RUN · RUN · RUN

장세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승리 다짐

국민의당 장세환 국회의원 후보(전주을)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이 27일 오후 5시 30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13 성진빌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은 깨끗하고도 공정한 클린선거,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를 통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을 다짐했다.

라혁일 전라북도체육회 고문과 고영호 전 전북대 사범대학장, 박기석 전 전주서중 교사가 선대위 고문에 선임됐다.

또 곽인희 전 김제시장과 김세견 수채화가, 장홍균 대한검도회 상임이사, 조순래 전 연합뉴스 전북본부장, 송영조 전 전주보훈지청장, 갈홍로 전 전주신흥고 교사 등 6명이 공동선대위원장에 각각 위촉됐다.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에는 이미숙, 소순명 전주시의원과 조형철, 최형열 전 전북도의원, 최명철, 성완기 전 전주시의원, 장연국 전 더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정종명 전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등 모두 8명의 전현직 시도의원과 전직 도당 간부들이 선임됐다.

/특별취재반

김성진 후보, "전북 발전 여야 경쟁·견제 필요하다"

새누리당 김성진(55) 국회의원후보(전주병)는 지난 26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사대부고 사거리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완산구에 비해 낙후된 덕진구를 미래 전북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지금 중앙에서 전북의 위상을 찾을 때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의 경쟁과 견제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문화, 관광, 산업 등 지역기반 산업의 기반구조를 견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다양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앞으로 전북대, 전주역, 송천동, 아중리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취재반

김관영 후보, 시민참여 위한 '공약실천추진위' 구성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군산, 사진)는 28일 소통과 시민참여를 위한 '(가칭) 공약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이번 총선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20대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지체 없이 공약실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공식 기구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약실천추진위원회는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은 "공약실천추진위원회 구성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군산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이자, 나아가 선거용 공약(空約)이 아닌 군산 시민과 국민을 위한 공약(公約)을 반드시 실천해내겠다는 각오의 발현"이라며 "현재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 상태지만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동네를 위한 복지 공약 및 시민 제안을 SNS 등을 통해서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향후 의정활동과 당의 주요 정책 및 대선공약 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강팔문 익산시장 후보, "할랄식품보다 시민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익산시장 후보(이하 강 후보)는 "지난 24일 개최된 할랄정책 소견발표회에 참석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내 할랄식품단지 유치에 대한 소견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익산시기독교연합회와 익산시 할랄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 기독언론인연합회 외 52개 단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4.13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각 당의 후보가 함께 자리해 소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견발표회에서 강 후보는 "시민이 불안에 떨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으며, "이슬람시장이 큰 시장인 것은 틀림없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13억 중국시장을 공략한다면 할랄식품단지 못지않은 지역경제의 견인책이 될 것이며 이미 정책수립을 추진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할랄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된 식품을 제조, 유통하는 사업을 뜻하며, 이번 행사는 익산왕궁지역에 할랄식품 테마단지 조성 추진에 대하여 관내 기독교 단체 및 52개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익산시장 유력 후보의 정견을 경청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별취재반